



2008년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사업 성과를 속속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가 나간다

대학 정보보호 인력의 올바른 정보보호 의식을 함양시키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KISA 대학정보보호동아리 지원사업이 올해에도 진행됐다. 특히, 올해에는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깊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대학 동아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일으켜 성공적인 사업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사진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2008년 대학정보보호동아리 지원사업은 예비 정보보호 인력들의 실력배양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전국을 서울·경기·강원, 경남, 호남, 충청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악성코드 및 침해사고 대응에 대한 실무 교육을 16회 실시하는 한편, 실제 대학기관의 전산망 보호에 일조하도록 유도하고 각 지역 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한 활동을 펼치도록 했다. 또한 동아리별 특징을 살려 정보보호와 관련된 기술보고서를 제작하도록 함으로써 단순 지원만이 아닌 동아리 회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정보보호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 2008년 사업의 성과로 기록됐다. 무엇보다 지원 대상 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학정보보호동아리연합회(KUCIS: Korea University Club of Information Security)를 운영,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운영하도록 해 동아리들의 자생력을 키우기도 했다.

전국 대학정보보호동아리에 대한 KISA의 이 같은 지원은 2008년 KISA가 주최한 각종 정보보호 관련 경연

대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기도 했다. KISA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해킹방어대회나 S/W 보안 취약점 찾기 대회의 상위권에 동아리 회원들이 이름을 올려 'DEFCON 16', 'Hack in The Box 2008'과 같은 해외 컨퍼런스 참가 기회를 얻어내기도 했다.

또 각종 교육과 경연대회 뿐만 아니라, KISA와 방통위가 전국의 복지단체, 장애우 가정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터넷 정보보호 온누리 캠페인'에 참여, 정보보호 교육 및 보안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 이용자 차원의 정보보호 수준제고에도 이들 동아리들이 활용됐다. 각 동아리에 대한 단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실전이 병행되는 것은 썬이다.

이와 관련해 KISA의 한 관계자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전국 단위로 모집된 대학정보보호동아리들의 수준이 매년 향상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동아리 지원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국내 정보보호 수준향상에 일조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동아별 수준 크게 향상돼 ”

1년 동안 활동했던 대학정보보호동아리연합회(이하 KUCIS) 운영진 8명을 인터뷰에 초대했다. 비록 대학생 신분
의 아마추어들이지만 이들의 열정만큼은 정보보호 전문가들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KUCIS의 솔직담백한
인터뷰 내용을 소개해 본다.

취재팀 2008년 KUCIS는 어떤 사업을 해 왔고, 운영진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다.

KUCIS 가장 중요한 사업은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 세미나 준비였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
여하고, 리버스 엔지니어링, 웹 해킹 및 대응기법, 시스템 침해사고 대응실무,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및 침입탐지 시스템 등 4개 분야에 대한 교육을 권역별로 4회씩 총 16회 진행했다.

취재팀 KUCIS가 지난해에 이어 한 단계 더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떤 점이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하나.

KUCIS 동아리별로 정보보호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정보보호 관련
벤더와 전공학과의 도움을 받아 산학연 코칭 제도를 신설했던 것이 동아리별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
이는 계기가 됐다. KISA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 예년에 비해 동아리 간 커
뮤니케이션이 활발해졌는데 올해 새로 구축된 웹 사이트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취재팀 장래의 보안 분야의 일원으로서 KUCIS가 내세울만한 장점이라면.

KUCIS 기업 내에서도 훌륭한 정보보호 담당자들이 있고, 또 그 분들은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반면 우리
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독창적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한다. 기업 담당자들은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는 발견해 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활동을 기업들이 매우 관심있게
바라보기도 한다.

취재팀 KISA가 KUCIS의 지원사업을 통해 그간 많은 사업들을 해왔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 인터
넷 정보보호 온누리 캠페인이 그러하고, 또 S/W 취약점 찾기 대회 역시 마찬가지다. 이 같은 활동에 참여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KUCIS 온누리 캠페인의 경우,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 일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
만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미있는 일이다. 온누
리 캠페인과 같은 일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감히 생각한다. S/W 취약점 찾기 대회도 우리의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꽤 많은 상용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우리들의
실력으로 찾아냈다.

취재팀 해커의 순기능이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찾아 해당 기업에게 알려주는 것이지만, 국내에서는 그
런 문화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KUCIS 가장 큰 이유는 크래커들의 불법 행위가 전체 해커그룹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대
부분의 기업 및 기관 담당자들은 해커그룹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취약점에 대한 기술보고
서 역시 저평가하거나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 인터넷 정보보호 온누리 캠페인, 가장 기억에 남아 ”

Interview

취재팀 KUCIS 내 각 동아리들이 대학기관 전산실과 합동으로 CERT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KUCIS 많은 동아리들이 CERT 업무에 관심이 높다. 대학 CERT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회원이 늘어나고 있고, 많은 수의 학생들이 각 대학 기관의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찾고 위협에 대비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영남 지역 동아리는 지역 내 기업의 웹이나 서버 취약점을 찾아내 알려주는 역할까지 한다.

취재팀 국내 정보보호 그룹 혹은 해커그룹이 해외 그룹과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KUCIS 실력이다(웃음). 유럽, 미국, 중국 등 각 국가별로 관심사의 차이 등이 확연하다. 어떤 지역에서는 악성 코드에 대한 관심이, 어떤 국가에서는 웹 해킹이 핫이슈가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해외에서는 취약점이나 해킹과 관련된 연구가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해킹에 대한 문서 공유 사이트가 부족하고,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기업이나 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은 해커그룹의 세밀한 능력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취재팀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해지는 것은 정작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에서는 신입생들을 어떻게 선출하느냐 하는 점이다.

KUCIS 동아리마다 특색이 있다. 열정만으로 가입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동아리는 신입회원 가입 시 면접시간이 4시간인 곳도 있다. 정보보호 분야의 특성을 살린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인 셈이다.

취재팀 KUCIS를 이끌어나가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KUCIS 전국에 대학 동아리가 넓게 퍼져 있지만, 정작 정보보호와 관련된 모든 정보채널은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 참석하고 싶은 세미나가 있어도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2009년에는 KUCIS가 주최하는 대규모 컨퍼런스를 대전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취재팀 KISA가 매년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지원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왜 KISA가 KUCIS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 해답을 스스로 내놓는다면.

KUCIS KUCIS 사업은 효율성이 매우 높다. 매년 40여개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로부터 배출되는 인원은 1,000여명에 이른다. 향후 몇 년 내 우리들이 정보보호 업계나 일반 기업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면 전국적으로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인적 인프라는 크게 확대될 것이며, 그것은 자연스럽게 정보보호 수준향상과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

〈KUCIS 운영진〉

서정현 조선대학교, 해커로그인
 김홍석 영남대학교, @Xpert
 김주연 동명대학교, Think
 조윤식 순천향대학교, Security First
 이동수 전남대학교, 정보보호119
 김호빈 숭실대학교, ACK
 장상환 세종대학교, S.S.G
 오두환 호서대학교 IsLab
 ※ 사진 좌측부터

